

◆ 3월 4일(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온라인 : 3월 3일(화) 12:00부터 보도

<b>보도자료</b> 2026. 3. 4.(수)	 <b>한국대학교육협의회</b> Korean Council for University Education
	<a href="http://www.kcue.or.kr">http://www.kcue.or.kr</a>

: ☎ 6919-3811 대학혁신지원실장 : 서동석 기획혁신팀장 : 지준오 담당 : 이소정

## 2026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이·취임식 및 정기총회 개최

-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3월 4일(수)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 호텔 서울에서 회장 이·취임식 및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전국 196개 4년제 대학 가운데 129개교 총장이 참석했다.
- 정기총회에 앞서, 제29대 양오봉 회장 이임식 및 제30대 이기정 회장 취임식에는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과 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축사를 맡았으며, 최교진 교육부장관은 영상으로 축하의 말씀을 전하였다.
- 이기정 회장은 취임사에서 우리 대학들이 직면한 고등교육의 위기 극복을 위하여 ▲ 재정 기반 공고화 ▲정책 추진체계의 일관성 확보 ▲규제 합리화 및 책임 있는 자율 강화 ▲AI 시대에 따른 교육·연구 혁신 공동기반 구축 ▲상생형 고등교육 생태계 조성 ▲국제화 방향 전환( '→정착과 성공)' 등 핵심 과제를 제시하였으며, 고등교육 혁신 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한 대교협의 연결과 조정 기능 강화를 강조하였다.

□ 회장은 1959년 출생해 한양대학교 영어영문학과 학사 및 석사를 졸업하고, University of Minnesota에서 언어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1994년부터 한양대학교 영어영문학과 교수로 재직하였으며, 2023년부터 한양대학교 총장으로 재임하고 있다. 그동안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과 출제위원장, World Congress of Scholars of English Linguistics 조직위원장, Asia Pacific Association for International Education 이사 및 부회장, 한양대학교 국제화위원장, 교육부 국제화 인증위원회 위원장,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수석 부회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이사 및 부회장 등을 역임하고, 현재 International Student Exchange Program 이사, 해군발전자문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에 있다. 이 회장의 임기는 2026년 3월 1일부터 2년(~2028.2.29.)이다.

□ 회장 이·취임식 이후 진행된 정기총회에서는 2025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 2026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을 심의·의결하였다. 주요 의결 및 보고사항을 마친 후 양오봉 제29대 회장(전북대학교 총장)의 '대학에서의 AI응용 사례' 강연을 듣고 질의·응답을 진행하였다.

□ 정기총회 마지막 시간에는 교육부장관과의 대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를 통해 대학 현안에 대한 논의와 정책 건의를 진행하였다.

□ 붙임 :

1. 이기정 회장 취임사, 사진 (별도 파일)
2. 정기총회 일정

## 취 임 사

존경하는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

제30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의 소임을 맡게 된 한양대학교 총장 이기정  
입니다. 오늘 저는 대학 현장이 마주한 엄중한 위기의식과, 전국 회원대학이  
보내주신 깊은 신뢰와 기대를 마음에 새기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책무는 결코 어느 한 개인이나 한 대학이 홀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  
닙니다. 대한민국 고등교육 전체가 함께 짊어지고 나아가야 할 시대적 과제  
입니다. 저는 회원교 총장님들, 그리고 대교협 임직원 여러분과 긴밀히 협력  
하며, 대학 공동체의 다양한 목소리를 더욱 정확히 모으고, 이를 사회와 정  
부에 성실하고 책임 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나아가 대학이 국가의 미래를 준  
비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재정적 조건을 현실 속에서 하나씩 마련해 가겠습  
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1982년 출범 이후 40여 년 동안 우리 고등교육의 주  
요 의제를 논의하고 조정해 온 대표적 협의체입니다. 직전 제29대 회장을  
맡으셨던 전북대학교 양오봉 총장님께서서는 고등교육 재정 확충과 제도 개선  
을 핵심 과제로 삼아, 대학이 직면한 시급한 문제들을 사회적 의제로 확장하  
는 데 큰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 성과 위에서, 더 넓은 연대와 더욱  
실행력 있는 해법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고자 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인문학적 성찰과 언어의 힘을 통해 사람과 사회를 바라보아  
왔습니다. 말은 생각을 담는 그릇이자, 공동체의 미래를 여는 약속입니다. 오  
늘 이 자리에서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대학이 위기를 넘어 국가의 미래  
를 이끄는 혁신의 중심으로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길을 열겠습니다. 그리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그 여정의 연결과 조정의 중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학령인구 감소는 대학의 근간을 흔들고 있으며, 재정 여건은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등록금 문제는 대학의 지속가능성과 학생 부담이라는 두 가치가 첨예하게 교차하는 지점에 놓여 있고, 지역은 인재 유출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대학은 지역과의 공생 방식을 다시 설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AI 전환이라는 거대한 흐름까지 더해지며, 대학은 교육과 연구의 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재구성해야 하는 시점에 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은 언제나 위기 속에서 해법을 찾아왔습니다. 앞으로 대교협은 대학의 목소리를 정책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정리하고, 그 정책이 다시 현장의 변화로 이어지도록 돕는 책임 있는 연결자의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 위에서, 대교협은 단순한 협의 기구를 넘어 고등교육 개혁을 위한 공동의 판단과 실행의 플랫폼으로 그 역할을 재정립해야 합니다. 저는 회장으로서 다음의 방향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의 과제들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고등교육 재정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겠습니다. 단기 사업 위주의 재정 구조로는 대학의 중장기적 혁신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고등교육 재정은 단순한 지출이 아니라 국가 경쟁력을 위한 전략적 투자라는 인식을 분명히 하며, 정부와 국회와의 논의를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등록금 문제 또한 갈등의 대상이 아니라, 교육의 질 제고와 합리적 비용 분담을 함께 모색하는 생산적 논의의 틀로 전환하겠습니다.

둘째, 고등교육 정책의 일관성과 추진 체계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대학 혁신은 한 해의 사업이 아니라 세대를 관통하는 과제입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대학이 촘촘히 협의하는 구조를 마련하고, 정책이 현장에 제대로 안착하는지 함께 점검하겠습니다. 대교협은 데이터와 근거에 기반해 대안을 함께 설계하는 정책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셋째, 규제는 합리화하고, 대학의 자율과 책무는 함께 강화하겠습니다. 대학을 움직이는 동력은 규제가 아니라 창의성입니다. 혁신을 가로막는 획일적 규정과 평가를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동시에 대학 스스로 교육과 연구의 질을 관리하고 성과를 입증하는 책임 있는 자율 모델을 더욱 정교화하겠습니다.

넷째, AI 시대에 부합하는 교육·연구 혁신의 공통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AI 전환은 개별 대학을 넘어선 국가적 과제입니다. 각 대학이 각자도생하는 구조가 아니라, 공통의 인프라 위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AI의 책임 있는 활용을 위한 교육 모델과 윤리 기준을 정립하여 사회와 투명하게 소통하겠습니다.

다섯째, 수도권과 지역, 국립과 사립이 상생하는 고등교육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어느 한쪽의 성장만으로는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공동 교육과정, 학점 교류, 산학협력 컨소시엄 등 공유와 연합의 모델을 확산시키고, 대교협이 그 조정자이자 플랫폼으로서 지자체와 기업, 대학을 잇는 허브가 되겠습니다.

여섯째, 국제화의 방향을 '유치'에서 '정착과 성공'으로 전환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외국인 유학생은 숫자가 아니라 한국 고등교육의 소중한 동반자입니다. 교육의 질 관리와 학습·생활·진로 지원이 함께 작동하도록 정책과 협력을 정교하게 설계하고, 공동 교육과정과 공동학위 등 실질적인 국제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총장님 여러분,

개혁은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입니다. 대학의 자율성은 책임과 함께할 때 사회적 신뢰를 얻을 수 있으며, 공공성 또한 지속 가능한 구조 위에서만 유지될 수 있습니다. 대교협은 대학의 입장을 단순히 대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회가 대학에 기대하는 역할에 대해 스스로 답을 만들어 가는 조직이 되겠습니다.

저는 회장으로서는 불편한 질문도 피하지 않겠습니다. 필요한 논의는 시작하고, 가능한 해법은 끝까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오늘의 취임은 선언이 아니라 약속입니다. 대학이 다시 국가 혁신의 중심이 되고, 청년에게는 기회의 공간이 되며, 사회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대교협이 책임 있는 개혁의 중심에 서겠습니다. 회원대학 총장님 여러분의 지혜와 용기, 그리고 굳건한 연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2>

## 2026년 회장 이·취임식 및 정기총회 일정

- ☐ 일 시 : 2026. 3. 4.(수) 14:00~19:30 (만찬 포함)
- ☐ 장 소 : 웨스틴조선호텔 서울 그랜드볼룸
- ☐ 참석대상 : 대교협 회원대학 196개교 총장
- ☐ 세부일정(안)

시 간	내 용	
13:30~14:00	등 록	사회 : 서동석 대학혁신지원실장
14:00~14:50	회장 이·취임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의례</li> <li>• 축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회 김영호 교육위원장, 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li> </ul> </li> <li>• 제29대 회장 기념 영상 및 이임사</li> <li>• 제30대 회장 취임사</li> <li>• 제23대 임원 소개</li> <li>• 기념사진 촬영</li> </ul>
14:50~15:00	휴 식	
15:00~15:40	정기총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회 선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기정 회장(한양대학교 총장)</li> </ul> </li> <li>• 신(연)임 대학총장 소개</li> <li>• 전차 회의록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관 개정 및 제30대 회장 선출 등</li> </ul> </li> <li>• 2025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 심의</li> <li>• 2025년도 업무 및 회계감사 결과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주희 前감사(동신대학교 총장)</li> </ul> </li> <li>• 2026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li> </ul>
15:40~16:20	대학에서의 AI 응용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오봉 전북대학교 총장</li> </ul>
16:20~16:40	휴 식	
16:40~18:00	교육부장관과의 대화	
18:00~18:10	전체 기념사진 촬영	
18:10~19:30	만찬 및 폐회	